

썸을 탄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조어 “썸타다”의 적용조건 분석*†

이 정 규

본고의 목표는, 한국어에 독특하게 나타나는 신조어인, 슬어 “썸타다”의 언어철학적, 인식론적 분석을 제공하여, 한국어 철학에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에 있다. 본고에서 나는 슬어 “썸타다”의 적용조건을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분석한다: 2절에서는 “썸타다”에서 나타나는 양화 표현인 “썸some”이, 의미론적으로 영역을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분석한다. 3절에서는 썸에서 나타나는 상호주관성의 측면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인식적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최종 분석에 대한 가능한 반론들에 답변한다.

주 제 언어 철학; 한국어 의미론; 인식론

주요어 썸타다; 정의; 신조어 분석; 상호주관성; 인식적 불확실성

* 투고일: 2019. 05. 06 심사 및 수정완료일: 2019. 06. 03 게재확정일: 2019. 06. 04

† 우선 본고에 대해서 유익한 심사평을 해준 익명의 세 심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본고의 이전 버전들을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준 유환, 윤철민과, 발전되기 전의 글을 보고 논문의 형태로 발전시켜보라는 제안을 해준 정훈 교수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무엇보다도 처음 논문을 쓰는데 동기 부여를 해주고 직간접적 실례를 제공해 준 이우람에게 큰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나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여러 가지 참신한 생각들을 제안해 주었던 서울대 논리학 (2018년 2학기, 겨울학기, 2019년 1학기) 수강생들과 논리와 비판적 사고 (2019년 1학기) 수강생들에게 가장 큰 고마움을 표한다.

1. 여는 말: 한국어 철학에 대한 필요성과 신조어 “썸타다”

흔히들 언어에는 그 언어 공동체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 그 공동체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공동체가 어떠한 것들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난다고 한다. 이에 대한 명백한 예시로서, 주식을 생각해 보자. 우리 한국어에서는 주식인 밥과 관련된 어휘들이 풍부하게 발달한 반면에, 영어에서는 “벼”, “쌀”, “밥” 등에 대응하는 대상을 모두 “rice”로 표현하며 대신에 소고기beef와 관련된 어휘들이 풍부하게 발달하였다.¹⁾ 이러한 예시는, 한 공동체의 주식 문화가 그 공동체 언어의 어휘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언어에 고유하게 발달된 어휘들과 용법들을 분석하는 작업이, 우리 언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 성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고유한 단어들과 용법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²⁾ 본고의 목표는 한국어에 독특한, 사랑 혹은 좋아함과 관련된 슬어인 “썸타다”의 언어철학적, 인식론적 분석을 제공하여, 한국어 철학에 일점 부분 기여하는 것에 있다.³⁾ 특히 철학에서 <사랑> 개념에 관한 연구는, 멀리는 플라톤의 『향연』에서부터 철학의 시작과 함께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로서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인간 본성이 특정한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그 사회의 독특한 어휘를 통해서 연구하는 것은, 분명 철학적으로

1) 예를 들어, “chunk”, “rib”, “short loin”, “sirloin”, “round”, “brisket”, “fore shank”, “short plank”와 같은 단어들이 있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직관적인 논의로는 Samovar et al. 2016: 251-255 참조.) 사실 한국어에서도 영어와는 다른 방식으로, 적어도 소의 부위에 대한 어휘들은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2) 반면에 미국의 경우 최근 미국 문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비방어slur에 대한 철학적 분석과 논쟁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Croom 2013; Jeshion 2013; Bolinger 2015; Popa-Wyatt and Wyatt 2018 등을 참조하라.)

3)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에 독특한 용법을 가진 표현 “우리”에 대한 최근의 철학적 분석과 논쟁으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정대현 2009, 2017; 강진호 2010; 최성호 2016, 2017a, 2017b

뿐만 아니라 언어적, 사회적으로도 의의를 가지는 작업이 될 것이다.

술어 “썸타다”는 2010년 전후로 나타난 신조어로서 사랑이나 좋아함과 관련된 이성 간의 미묘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며, 다른 언어권에서는 그 의미에 정확히 대응하는 술어를 찾기 힘들다.⁴⁾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술어의 분석으로서, 젠킨스(Jenkins 2006)는 “The Rules of Flirtation”에서 술어 “flirt”가 표현하는 개념에 대한 적용조건을 분석한다.⁵⁾ 하지만 물론 “썸타다”는 “flirt”와는 다른 의미를 표현하는,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서구권과는 다른 우리에게 독특한 문화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어휘 중 하나이다.⁶⁾ 또한 표준 어휘로 인정을 받거나 받아 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신조어들에 대한 분석은, 단지 우리 문화가 과거에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 언어 공동체의 표준적인 어휘로 거의 자리 잡아가며 널리 쓰이고 있는 신조어인 “썸타다”에 대한 분석 역시 그러한 이해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⁷⁾⁸⁾

4) 예외적으로, 중국어에서 “玩曖昧”라는 술어가 <썸타다>와 유사한 의미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5) 젠킨스는 “flirting”에 대해서 여러 가능한 분석들에 대한 반례들을 고려한 후, 최종적으로 다음의 분석을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제시한다: First, the flirter should act with the intention to do things which are disposed to raise flirter-flirtee romance and/or sex to salience for the flirtee, in a knowing yet playful manner. Second, he or she should believe that the flirtee can respond in some significant way (Jenkins 2006: 40).

6) 반대로 한국어에는 영어 “flirt”에 완전하게 대응하는 술어가 없으며, 이는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영어 문화권의 독특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술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썸타다”라는 신조어가 상당히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은, 이 어휘가 나타난 이후로 많은 노래 제목들이 이 어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유와 정기고의 <썸>, 케이윌과 마마무의 <썸남썸녀>, 불빨간사춘기의 <썸 탈꺼야> 등등.)

8) 한 심사자는 왜 “썸타다”라는 표현이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사용되었으며, 어떠한 시대적 변화가 이러한 어휘의 유통을 촉발시켰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었다. 나는 이러한 작업들이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아마도 상처를 받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형성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현대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이러한 어휘의 유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라 거칠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의 1차적 목적은 “썸타다”의 적용조건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은 언어 심리학/

나는 본고에서 술어 “썸타다”의 적용조건(application condition)에 대한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제안할 적용조건의 최종 형태가, 어떤 가능한 반례도 허용하지 않는 완전무결한 분석이라고 단언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단어에 대한 완전무결한 정의를 제공하려는 작업은 수행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식론에서 <지식> 개념에 대한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는 분석이 게티어(Gettier 1963)의 유명한 반례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른 철학적 분야에서도, 다른 사정이 같다는 조건 하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분석임에는 틀림없듯이, “썸타다”에 대한 나의 분석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다른 관련 분야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술어 “썸타다”를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분석한다: 우선 2절에서는 “썸타다”에서 나타나는 양화 표현인 “썸some”이 의미론적으로 영역(domain)을 어떻게 제한하는지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3절에서는 썸을 탈 때 나타나는 상호주관성의 측면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인식적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5절에서는 가능한 반론들에 대해서 답변한다. 분석은 정의를 제공하려는 각각의 시도에 대한 반례를 제시하고, 그러한 반례를 극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의를 찾아가며 좀 더 올바른 분석에 가까워지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2. “썸타다”와 양화 표현 “some”

신조어 “썸타다”라는 말의 정확한 어원은 분명하지 않지만, 일견 양화 표현 “some”과 한국어 동사 “타다”가 합성된 술어로 보인다. 하지만 두 단어의 의미가 단순하게 합성되어서 “썸타다”가 <어떤 무엇인가가 타고 있다>라는 의미를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썸타다”는 사람들 사이의 특정한 관계를 나타내는 술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징과 양화 표현 “some”의 의미 역시 살려주는 분석으로서, 다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학자들에게 맡기도록 하겠다.

(1) a와 b가 썸을 탄다 iff a와 b 사이에 무엇something인가가 있다.9)

위의 분석은 일견 직관적으로 보인다. 즉, 많은 경우에, “a와 b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발화는, <a와 b가 썸을 탄다>는 명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같다.10) 하지만 이때의 발화는, 위 명제를 화용론적 함축으로서 전달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표현된 명제를 고려할 경우, 좌향과 우향의 진리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명백한 것 같다. 이를테면 나와 아이유 사이에 물컵이 놓여 있는 경우, 나와 아이유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으므로, 우향은 참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아이유와 썸을 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상의 고려에서, 술어 “썸타다”는 그 문자적 의미 자체가, 무엇something에 속할 수 있는 범위domain를 의미론적으로 제한해 주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a와 b 사이의 물리적 대상이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무엇인가를 심리적인 어떤 관계로 제한하는 다음의 분석을 고려해 보자.

(2) a와 b가 썸을 탄다 iff a와 b 사이에 심리적인 무엇인가가 있다.

하지만 (2) 역시 실패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내가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을 존경할 경우 나와 러셀 사이에는 존경이라는 심리적인 관계가 생기며, (2)의 정의에 따를 경우 러셀과 썸을 타게 된다. 물론 이러한 결론은 옳지 못하다.

9) 여기에서 나는 “썸타다”를 a와 b 두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2항 술어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세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함께 동시에 썸을 타는 관계를 가지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동성 세 명이 동시에 썸을 타다가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분석의 편의상 이 글에서는 2항 술어로서 “썸타다”를 분석하겠다. 아마도 2항 술어로서의 분석을 기반으로, 세 명 이상이 관련된 경우의 적용조건도 유사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10) 이러한 이유 때문에, “a와 b가 썸을 탄다”의 영어 번역은 종종 “There is something between a and b”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번역은 전달된 의미를 파악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번역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문자적인 의미, 즉 진리 조건을 보존하는 번역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그 범위를 더욱 제한해야 할 것 같다. 따라서 그러한 요구를 만족하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고려해 보자.

(3) a와 b가 썸을 탄다 iff a와 b 사이에 어떤 이성(異性)적인 감정이 있다.

심리적인 무엇인가를 이성적인 감정으로 제한하는 이러한 제안은 일견 올바르게 보일지도 모른다.¹¹⁾¹²⁾ 이 경우 내가 러셀과 썸을 타게 된다는 반례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석 (3) 역시도 새로운 반례에 부딪힌다. 이미 사귀고 있는 연인들이나, 결혼한 부부의 경우를 고려해 보자. 적지 않은 경우에 사귀고 있는 연인이나, 부부의 구성원 사이에는 어떤 이성적인 감정이 있을 것이다.¹³⁾ 하지만 연인이나 부부가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썸을 탄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을 것 같다. 썸을 타는 경우의 이성적인 감정은 많은 경우 연인이나 부부가 가지는 이성적 감정과는 명백히 다른 것 같다.

아마도 a와 b가 썸을 타는 경우에 가지는 이성적인 감정은, 연인이나 부부인 경우에 서로가 가지는 이성적인 감정보다 조금 더 미묘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3)의 분석에 “미묘한”이라는 단어를 삽입한 다음의 분석을 고려해 보자.

(4) a와 b가 썸을 탄다 iff a와 b 사이에 어떤 미묘한 이성적인 감정이 있다.

11) 나는 “이성적인”이라는 표현으로 동성끼리의 썸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이성적인”이라는 표현은 자신과의 반대 성별을 지시하기 위한 용어가 아니라, 동성이든 이성이든 어떤 예로스적인 사랑이나 호감과 관련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편의상 사용된 용어이다.

12) (3) 이후에 나타나는 분석들에서, 나는 편의상 썸을 기본적으로 감정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입장을 전제할 것이다. 이는 사랑을 감정으로 보는 입장과 유사한 입장을 썸에 대해서 전제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사랑을 감정으로 보는 입장에는 다음이 있다: Hamlyn 1978; Rorty 1986; Brown 1987; Baier 1991; Badhwar 2003)

13) 물론 더 이상 전혀 이성적인 감정이 없는 연인이나 부부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논의의 편의상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연인이나 부부만을 고려하도록 하자.

이때, (4)는 어떤 반례도 허용하지 않는 진리 조건을 제시하는 분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a와 b가 썸을 타는 경우에, a와 b 사이에는 어떤 미묘한 이성적인 감정이 있고, 또한 a와 b 사이에 어떤 미묘한 이성적인 감정이 있다면, a와 b는 썸을 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설사 (4)가 이처럼 어느 경우에도 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4)는 우리에게 인식적으로 새롭게 밝혀 주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따라서 적어도 인식적으로 유용한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미묘한”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우리가 아직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묘한 이성적인 감정”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명시적으로 분석하기 전까지, 아직 (4)는 제대로 된 분석으로서 인식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나는 3절에서 썸의 다른 특징인 상호주관성에 대해서 분석한 후, 4절에서 썸의 인식적 불확실성에 대해 논하면서, 다시 이에 대한 분석을 제공할 것이다.

3. 썸의 상호주관성

2절에서 나는 a와 b가 썸을 타는 경우, a와 b 사이의 어떤 것의 범위가 어떻게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그것이 어떤 미묘한 이성적 감정으로 제한되어야 하지만, 그 자체가 인식적으로 유용한 제대로 된 분석은 아직 아니라고 논증하였다. 이 절에서는 썸타는 것에 대한 다른 특징, 즉 상호주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보자.

썸이 상호주관적이라는 것으로 내가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 관련된 두 대상들 모두의 심적 상태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초기 상태의 a와 b가 썸을 타기 위해서는 단지 한 사람만의 심적 상태 변화로는 부족하며, a와 b 모두의 심적 상태의 어떤 변화가 요구된다. 이는 이를테면 “사랑한다”와 같이 한 사람의 심적 상태에 의해서도 그 술어를 포함한 문장의 진리 값이 결정될 수 있는 2항 술어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TV에서 아이유를 보고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나는 아이유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을 내가 발화한다면 그것은 참인 명제를 표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이유에게 어떤 특정한 형태의 이성적인 감정을 가졌다고 한들, 곧바로 내가 아이유와 썸을 타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혹은 내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혼자 아이유와 썸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더라도, 혹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우연한 기회에 아이유와 밥을 먹고 영화를 보게 되었다고 한들, 아이유의 심적 상태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도 없다면, 이는 썸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썸을 타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나는 a와 썸을 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건 나의 착각이었어”라는 발화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요컨대, 썸을 타기 위해서는 관련된 두 대상 모두의 심적 상태에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 같다.¹⁴⁾

따라서 이러한 썸의 상호주관성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분석으로서 다음을 생각해 보자.

- (5) a와 b가 썸을 탄다 iff a가 b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b 역시 a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썸을 타는 것이 a와 b의 심적 상태 모두와 관련된 것임을 나타내고, 또한 그 심적 상태가 a와 b가 서로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는

14) 나는 여기에서 사랑을 어떤 고유한 감정 상태로 간주하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Hamlyn 1978; Brown 1987). 하지만 사랑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과 심적 상태에 의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과 역사성이 그 설명에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를테면, Rorty 1986; Baier 1991; Badhwar 2003 등) 나는 이 경우에 사랑의 발생 과정에 대한 분석과 적용조건에 대한 분석을 분명히 구분하면, 그러한 요소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의 발생에 어떤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용조건에 대한 분석에 고려되는 요소는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서, 만일 상호작용과 역사성이 “a가 b를 사랑한다”의 진리조건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가정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b가 a를 사랑한다”와는 다른 진리조건을 가지며, 이러한 진리조건의 비대칭성만 있다면, “사랑하다”와 “썸 타다”의 상호주관적 차이를 보여주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상태라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썸을 타는 것이 상호주관적이라는 특징을 반영하는 분석이라 볼 수 있다.¹⁵⁾

하지만 (5)의 분석은 썸을 탈 때 나타나는 상호주관성이 a와 b의 어떠한 인식적인 상태와 관련되는지 아직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한다. (5)에 대한 다음의 반례를 생각해 보자: 서로에게 낯선 사람인 a와 b가 우연한 기회에 길에서 마주쳐서 서로가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하자. 하지만 둘은 서로 그냥 갈 길을 갔고, 따라서 상대가 자신에게 반한지 알 길이 없다. 각자 집으로 돌아와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생각하지만, 상대의 이름도 모르고 만날 방법도 없고, 그냥 그렇게 평생 못 만났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a는 b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한 b 역시 a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a와 b가 썸을 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위의 반례에서 볼 수 있듯이, 썸을 타기 위해서는 단지 a와 b가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가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지식 역시 가져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를 보완하는 분석으로서 다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6) a와 b가 썸을 탄다 iff a가 b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b 역시 a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a와 b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앞서 들었던, 서로 우연하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사실은 모르는 a와 b의 경우를 썸을 타는 것에서 제외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정의도 완전하지 못하다. 위의 예시를 변형한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a와 b는 어떤 교류도 없지만, 서로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

15) 한 심사자는 분석 (5)에서는 아직 a와 b의 감정적 대칭성만이 나타날 뿐, 상호적 개입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호주관성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해 주었다. 나는 본고에서 “상호주관성”이라는 용어를, 편의상 단지 두 사람의 심적 상태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넓은 의미의 용어로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상호주관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만일 심사자의 지적이 옳다면, 우리는 앞으로 볼 정의 (6) 혹은 (7)에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상호주관성이 나타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있다. 이때 a가 우연히 b의 메모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a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적혀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우연히 a가 쓴 메모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b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적혀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는 자기 자신이 b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또한 b가 자신에게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메모에 쓰인 일종의 증언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b도 a에 대해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a와 b가 이러한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비록 두 사람이 곧 썸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현재 썸을 타고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이유는 a와 b 서로 상호 간의 감정적인 교류가 아직 없기 때문인 것 같다.¹⁶⁾ 물론 감정적인 교류라는 개념은 분석이 더 필요한 개념이지만, 우선은 분석 (6)에 감정적인 교류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위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다음의 분석을 고려하자.

- (7) a와 b가 썸을 탄다 iff a가 b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b 역시 a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a와 b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a와 b 사이에 감정적인 교류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썸을 타는 경우 a와 b가 어떤 심적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를 비교적 잘 보여주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분석 자체는 우리가 2절에서 고려했던 사귀고 있는 연인들이나, 결혼한 부부의 경우를 썸타는 것에서 제외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경우에, 사귀고 있는 연인이나 부부는 서로가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그 사실 자체 역시 잘 알고 있고, 또한 감정적인 교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 (7)에, 미묘한 이성적 감정이라는 조건이 들어갔던 (4)를 결합한 다음의 분석을 고려하자.

16) 김대은, 김민준, 김인희, 김정하, 김현석, 백승은, 장재원, 심채은, 허용석이 이러한 점을 지적해 주었다.

- (8) a와 b가 썸을 탄다 iff a가 b에게 미묘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b 역시 a에게 미묘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a와 b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a와 b 사이에 감정적인 교류가 있다.

이제 문제는 다시 “미묘한”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또한 추가로 “감정적인 교류”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가 되었다. 나는 다음 절에서 썸을 탄다는 주체가 가지는 인식적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분석하겠다.

4. 썸의 인식적 불확실성

나는 3절에서, 썸이 한 사람의 심적 상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의 심적 상태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썸이 가지는 상호주관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절에서는 사귀는 연인이나 부부의 경우를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썸의 주체들이 가지는 인식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논의하며 최종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분석 (8)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이성적인 감정”을 “이성적인 호감”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다음 분석을 고려해 보자.

- (9) a와 b가 썸을 탄다 iff a가 b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b 역시 a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a와 b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a와 b 사이에 감정적인 교류가 있다.

이 분석에서 나는 “이성적인 호감”이라는 용어를 아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어느 정도 충분한 이성적인 감정에서부터¹⁷⁾ 완전히 발전된 형태의 이성적인 감정까지 사이의 모든 가능한, 단계적인 gradable 정도 degree를 가지고 있는 용어로서 정의하겠다.¹⁸⁾ 이 경우 이성적인 호감은 완전한 형태의 이성

17) “어느 정도 충분한” 이성적인 감정이 아닐 경우 우향이 아주 사소하게 만족 될 우려가 있다. (이예현, 이우람이 이를 지적해 주었다.)

18) 따라서 이는 (이성적인) 사랑이나 좋아함, 혹은 두 감정 사이의 과도기적 감정들을

적인 감정으로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미묘함이라는 개념에 대한 완전한 분석이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사귀는 연인이나 부부의 경우 둘 다 완전히 발전된 형태의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한 둘 다 이 사실을 알고 감정적 교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완전한 분석을 위해서는, 썸을 타는 경우에는 나타나지만, 연인이나 부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상호 간의 심적 상태에 대한 어떠한 인식적 불확실성이 분석에 추가되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분석 (9)에서 나타나는 a와 b가 서로의 호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정된 다음의 분석을 고려해 보자.

- (10) a와 b가 썸을 탄다 iff a가 b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b 역시 a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a는, b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증거들은 이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b 역시도 a에 대해 마찬가지로. 또한 a와 b 사이에는 감정적인 교류가 있다.

상대방의 호감에 대한 인식적인 불확실성을 추가시킨 이러한 분석은, 사귀는 연인이나 부부의 경우를 썸에서 제외해 주는 것 같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some”이라는 양화 표현을 사용할 때 종종 나타나는 함축적인 의미인 <무엇인가 있기는 한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역시 분석 (10)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¹⁹⁾

이제 분석 (7)에서 처음 도입되었던 감정적인 교류라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석해 보자. 이 조건은 분석 (10)에서 나타나는 개념인, 긍정적인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이다.

19) 예를 들어, 내가 “유정이가 어제 가게에서 무엇인가를 샀어”라고 상대에게 발화한다면, 그라이스의 양의 격률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많은 경우에, 이러한 발화로부터 유정이가 무엇인가를 샀긴 했는데,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함축이 생길 것이다. 물론 “썸타다”의 경우는 유사한 형태의 의미가 함축이 아닌 의미론적인 차원에서 나타난다.

증거에 대한 것으로 재해석 될 수 있다. 즉, 3절에서 이 조건의 도입을 위해 제시되었던 예시는, a가 b의 호감에 대한 증거를 b와의 상호작용 없이 독립적으로 우연히 얻게 된다면 썸을 타는 경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재해석 될 수 있다. 여기에서 a가 b와의 상호작용 하에 b의 호감에 대한 증거를 얻게 된다는 것을 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a가 파악한 b의 호감에 대한 (충분치 못한) 증거들은, b가 자신에 대한 증거를 a가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적어도 암묵적으로) 인지하는 방식으로 표출된 증거이다. 이를테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a가 b의 호감을 파악한 경우, 그 증거는 b가 자신에 대한 증거를 a가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었을 것이다. 반면에 a가 그 증거를 b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방식을 통해서 파악한다면, 그 증거는 b가 자신에 대한 증거를 a가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썸을 타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그러한 증거를 같은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더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이라는 것도 추가되어야만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서로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증거를 얻었더라도, 증거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아예 없으면 썸을 타기 시작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²⁰⁾ 따라서 감정적인 교류에 대한 분석으로

20) 이러한 조건은 익명의 심사자의 예시를 설명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 익명의 심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썸을 탈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은 심사자의 예시를 직접 인용한 것이다: a는 미국 여행을 하던 중 LA에 사는 친구 c의 집에 놀러 갔다가 그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우연히 c의 앞집에 사는 한인 여성 b를 보게 되었다. a는 b를 보자마자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고, b 또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a가 멋있는 남자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a는 파티에서 b와 말을 나눌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에도 a와 b는 서로를 종종 떠올린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친구 c와 전화하는 과정에서, b가 “그때 파티에 참석한 당신 친구 a씨가 참 인상이 좋더군요”라는 말을 c에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친구 c로부터 이 말을 들은 a는 c에게 b 또한 멋있는 여성으로 보이더라는 말을 하고, c는 b에게 이 말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a와 b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a와 b는 이미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서로 연락을 취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에 a와 b가 썸을 타지 않는 이유를, 심사자는 a와 b가 지속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주었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예시를 썸에 포함하기 위해, 감정적

서, 증거의 표출과 인지 방식, 그리고 기대감을 추가한 다음의 분석을 고려할 수 있다.

- (11) a와 b가 썸을 탄다 iff a가 b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b 역시 a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a는, b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증거들은 이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b 역시도 a에 대해 마찬가지로이다. 또한 a가 파악한 b의 호감에 대한 증거는, b가 자신에 대한 증거를 a가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표출된 증거이며, b가 파악한 a의 호감에 대한 증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a와 b는 이러한 증거를 같은 방식으로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 분석은, 많은 일반적인 경우에 썸인 경우와 썸이 아닌 경우를 잘 구분해 주는 만족스러운 분석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을 최종적인 분석으로 제시하기 전에, 서구권과 다른 한국의 문화적 특징으로부터 (11)에 추가되어야 하는 조건이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다. 서구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귀어라는 관계를 공식적으로 하기 위한, “우리 사귀도록 하자”와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언화 행위 *speech acts*를 명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드물고, 썸에서 연인으로서의 발전이 호감의 발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석 (11)이 비교적 잘 적용된다. 반면에 한국의 문화는 “우리 사귀도록 하자”라는 언화 행위가 연인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만일 a와 b가 이러한 언화 행위를 서로의 상호 동의하에 제대로 수행했다면, 둘의 감정 상태가 아무리 발전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a와 b는 곧바로 연인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 같고, 이러한 경우에 우리의 직관은 a와 b가 연인이 되어버렸으니, 더 이상 썸을 타지 않는다는 것이다: a와 b가 동일한 감정적, 인지적 상태에 있더라도, 연인의 관

인 교류에 대한 분석으로서, 증거에 대한 표출과 인지 방식, 그리고 기대감을 썸의 조건으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조건이 추가된 분석 (11)은 심사자의 예시를 썸을 타지 않는 경우로 잘 분류해 주는 것 같다. (흥미로운 예시를 제시해 준 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계를 공식화하는 언화 행위가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썸을 타는 상황과 타지 않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a와 b의 심적 상태만을 통해서 썸을 분석한 (11)의 분석에, 연인의 관계를 공식화하게 해주는 언화 행위가 수행되지 않았거나 수행되었던 경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조건을 추가하도록 하자.²¹⁾

(12) a와 b가 썸을 탄다 iff a가 b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b 역시 a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a는, b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증거들은 이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b 역시도 a에 대해 마찬가지이다. 또한 a가 파악한 b의 호감에 대한 증거는, b가 자신에 대한 증거를 a가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표출된 증거이며, b가 파악한 a의 호감에 대한 증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a와 b는 이러한 증거를 같은 방식으로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a와 b 사이에는 사귀는 것을 명시화하는 적절한 언화 행위가 수행되지 않았거나, 수행되었던 경우에는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나는 썸에 대한 최종적 분석으로서 (12)를 제안한다. 나는 이 분석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썸과 썸이 아닌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분석이라고 제안하지는 않는다. 둘의 경계에 걸쳐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이성적인 호감”이나 “충분한 증거”와 같은 비교적 외연히 모호한 용어들이 오히려 왜 그런 상황이 경계에 걸쳐있는 상황인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고를 마치기 전에, 나는 다음 절에서 이 분석에 대한 반론 두 가지를 고려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겠다.

21)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 a와 b가 썸을 타는 것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

5. 반론과 답변

5.1 제안된 분석은 어장관리의 경우를 썸에서 제외할 수 없다

첫째로, a가 b에게 어장관리를 하는 경우 (12)의 우향은 만족 되지만, 썸을 타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을 고려해 보자.²²⁾ 이 반론은 어장관리를 두 가지 유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어장관리의 첫 번째 유형은, a가 b에게 전혀 호감이 없지만, 호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해석할 여지를 남기는 행동들을 통해서, b에게서 개인적인 이득만 취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a가 b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12)의 우향이 만족 되지 않고, 썸의 경우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어장관리의 두 번째 유형은 a가 b에게 호감은 가지고 있지만, 진지한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12)의 우향이 만족 되는 것 같다. 하지만 또한 큰 무리 없이 a와 b가 썸을 탄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다. 우리는, “나는 b와 연인은 되기 싫고, 그냥 썸만 타는 관계로 계속 남고 싶어”라는 발화를 적법하게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어떤 모순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즉, 어장관리의 두 번째 유형은 연인으로 발전할 생각은 없지만 썸만 타기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다.

요컨대, (12)의 우향이 만족 되는 것은 어장관리의 두 번째 유형이고, (12)의 좌향이 만족 되지 않는 것은 어장관리의 첫 번째 유형이다. 어장관리가 (12)의 반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두 유형의 어장관리를 구분하지 않고 뒤섞어서, 마치 (12)의 우향이 만족 되지만 (12)의 좌향이 만족 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두 유형을 명확히 구분한다면 이러한 오해는 사라진다.

22) 이러한 반론은 김범기, 김우탁, 김인태, 김승주, 김지수, 박지윤, 이선미, 이재현, 한현규가 제시해 주었다.

5.2 제안된 분석은 단지 성적 목적의 관계를 썸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번에는 a와 b가 단지 성적 목적의 관계인 친구friend with benefits(이하 “FWB”)인 경우, (12)의 우향은 만족 되지만, 썸을 타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에 대해서 고려해보도록 하자.²³⁾ 이러한 반론은 a와 b가 FWB인 경우, 썸을 타는 것이 자동적으로 배제된다는 오해에서 기인하며, 5.1절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답변이 가능하다. 즉 FWB라 하더라도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전혀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며,²⁴⁾ 이때 (12)의 우향이 만족 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썸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12)의 우향이 만족 되는 유형의 FWB는 어떨까? 우선 (12)의 우향이 만족 되는 경우에 썸을 탄다는 우리의 분석을 일단 수용하도록 해보자. 이 경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FWB인 a와 b가, 현재 썸도 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 FWB였던 a와 b가 썸을 타기 시작하여 진정한 연인으로 발전하는 그림에는 아무 모순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반론이 분석 (12)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6. 맺는 말

본고에서 나는 “썸타다”의 적용조건을, 그것의 세 가지 측면—양화 표현의 영역 제한, 상호주관성, 인식적 불확실성—을 통해 분석하였다. 내가 도입부에서 밝혔듯이, 나는 본고의 분석이 어떤 상황에서도 썸과 썸이 아닌 경우를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완전무결한 분석이라고 단언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경계 상황에 있는 어떤 경우는 적용조건에 대한 서로의 직관이 상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나는 반대로 나의 이론적 분석이 직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많은

23) 이러한 반론은 남승우, 조재경, 장지수, 황예은이 제시해 주었다.

24) 나는 오히려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서로 단순한 성적인 이빨립 이외에, 이성으로서의 호감 역시 있는 경우는, 단순히 일시적인 FWB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우 철학에서의 이론적 분석과 우리의 직관은 상보적이다: 우선 직관적인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철학적 이론이 확립이 되고 그러한 이론이 다른 관련된 많은 현상들에 대해 비교적 좋은 설명들을 제공한다면, 그 이후에는 종종 그러한 이론이 우리의 직관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썸타다”에 대한 나의 분석도, 이 분석이 대부분의 관련된 현상들에 대해서 직관들에 부합하는 비교적 좋은 설명을 제시해준다는 것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그 적용조건을 명확히 하고, 직관이 상반되거나 뚜렷한 직관이 없는 경우에 과연 누구의 직관이 맞는지를 역으로 이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거의 표준적인 어휘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한국어 신조어 “썸타다”에 대한 본고의 분석이, 한국어 철학과 관련 분야의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물론 본고의 분석이 추후 반례들의 발견에 의해서 수정될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현존하는 어떤 다른 분석 보다 발전된 분석이며, 더 나아가 철학적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 본고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진호 (2010) “‘우리 마누라’의 의미” 『철학적 분석』 21: 153-64.
- 정대현 (2009) “‘우리 마누라’의 문법” 『철학적 분석』 20: 69-83.
- _____. (2017) “‘우리 마누라’의 사용: 강진호와 최성호의 속성론” 『철학적 분석』 38: 327-53.
- 최성호 (2016) “‘우리 마누라’와 험티덤티 문제” 『철학적 분석』 36: 143-67.
- _____. (2017a) “강진호 교수에게 ‘우리 마누라’란 무엇인가” 『철학 사상』 64: 183-215.
- _____. (2017b) “‘우리 마누라’, ‘우리의 마누라’, 그리고 마누라 공유 공동체” 『철학적 분석』 38: 291-326.
- Badhwar, Neera K. (2003) “Love”. In Hugh LaFollette (ed.), *Practical Eth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42-69.
- Baier, Annette (1991) “Unsafe Loves”. In Robert Solomon and Kathleen Higgins (eds.), *The Philosophy of (Erotic) Love*. Lawrence: Kansas University Press: 433-50.
- Bolinger, Renée J. (2015) “The Pragmatics of Slurs”. *Nous* 51: 439-62.
- Brown, Robert (1987) *Analyzing Lo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om, Adma M. (2013) “How to Do Things with Slurs: Studies in the Way of Derogatory Words”. *Language & Communication* 33: 177-204.
- Gettier, Edmund (1963) “Is Justified True Belief Knowledge?”. *Analysis* 23: 121-23.
- Hamlyn, David W. (1978) “The Phenomena of Love and Hate”. *Philosophy* 53: 5-20.
- Jenkins, Carrie (2006) “The Rules of Flirtation”. *The Philosophers' Magazine* 36: 37 - 40. Reprinted in Clark, M. and Miller, K.

- (eds.), *Dating: Flirting With Big Ideas*. (2010) Oxford: Blackwell: 13-18.
- Jeshion, Robin (2013) “Expressivism and the Offensiveness of Slurs”. *Philosophical Perspective*: 231-59.
- Popa-Wyatt, Mihaela and Jeremy L. Wyatt (2018) “Slurs, Roles, and Power”. *Philosophical Studies* 175: 2879-906.
- Rorty, Amelie O. (1986) “The Historicity of Psychological Attitudes: Love Is Not Love Which Alters Not When It Alteration Finds”.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10: 399-412.
- Samovar, Larry A, Richard E. Porter, Edwin R McDaniel and Carolyn S. Roy (2016) *Communication between Cultures* (9th Edition). Cengage Learning.

서울대학교 철학과

Email: jeonggyulee@snu.ac.kr

An Analysis of the Application Condition for the Newly-coined Korean Word “썸타다”

Jeonggyu Le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philosophy by analyzing the newly-coined Korean word “썸타다”. (Roughly speaking, the meaning of the predicate “썸타다” sometimes can be conveyed (not exactly, but approximately), when we say something like, “There is something going on between a and b”.) In this paper, I analyze the application condition for the predicate “썸타다” by investigating its three aspects: In section 2, I clarify which kind of a domain is restricted by the quantity expression “썸some” in “썸타다” on its semantic level. In Section 3 and 4, I analyze inter-subjectivity and epistemic uncertainty of two persons when the pair of them is in the extension of the predicate “썸타다”. Finally, I consider two possible objections to the final analysis and reply to them.

[Subject] philosophy of language, korean language semantics, epistemology

[Keywords] “썸타다”, definition, newly coined word, inter-subjectivity, epistemic uncertainty